

영국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전망 주요 내용 및 시장의 평가

1 중기재정계획 발표 배경

- 영국 정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**재정건전성 우려**를 **불식**시키기 위해 **중기 재정계획**(Autumn Statement) 및 **재정전망**을 발표*(11.17일)

* 중기재정계획은 재무부가, 경제·재정전망은 독립된 공공 재정감시기관(fiscal watchdog)인 예산책임청(Office of Budget Responsibility; OBR)이 각각 발표

- 지난 9.23일 전임 Truss 내각의 **조달계획 없는 대규모 감세안** 발표 이후 정부부채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중기 인플레이션이 당초보다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**영국 국채금리**가 **급등**하고 **파운드화**가 **급락**한 바 있음

2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전망 주요 내용

- 증세 및 조세감면 축소와 같은 **정부수입 증대**(248억파운드), 공공투자 축소를 포함한 **정부지출 감축**(301억파운드) 등 연간 최대 **550억파운드*** 규모의 **재정건전화 정책**을 발표

* 영국 명목 GDP(2.3조파운드, 2021년 기준) 대비 약 2.4%에 해당

- (정부수입) 개인의 경우 **소득세 최고세율**(45%)에 대한 **과세구간 확대**(15만파운드 초과 → 12.5만파운드 초과), **소득세 및 국가보험**(National Insurance, NI) **기여금**의 **과세구간 동결 연장**, **배당 및 자본이득**에 대한 **공제 축소** 등을 단행

— 기업의 경우 **석유 및 가스부문의 초과이윤세 인상**(25% → 35%) 및 **과세기간 연장**(2026년 → 2028년), **전력공급기업 대상 초과이윤세**(45%) **신설**, **국가보험 고용주 기여금**에 대한 **납부면제 소득한도 동결 연장** 등을 시행

작성자 : 반진희 과장, 임준혁 과장

○ (정부지출) 실질 경상지출 증가율을 1%로 축소하고 명목 자본지출을 동결 하되 시행시기를 2025년(이상 회계연도 기준) 이후로 이연(back-loading)

— 또한 지난 9.8일 발표했던 가계 에너지요금 지원(Energy Price Guarantee) 규모를 축소*

* 당초 연평균 가계 에너지요금 상한을 올해 10월부터 2년간 2,500파운드 상당으로 동결 하였으나 금번 조치로 내년 4월 이후 상한액이 3,000파운드로 인상

— 다만 팬데믹 이후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와 인적자본 확충 등을 고려하여 2023~24년중 의료 및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은 확대

□ 예산책임청(OBR)은 금번 중기재정계획과 현 영국경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재정전망을 시행한 결과 정부부채비율이 2025년 정점(97.6%)에 달한 이후 점차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

○ 금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조세수입 증대 및 지출감축으로 인해 공공부문 차입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평가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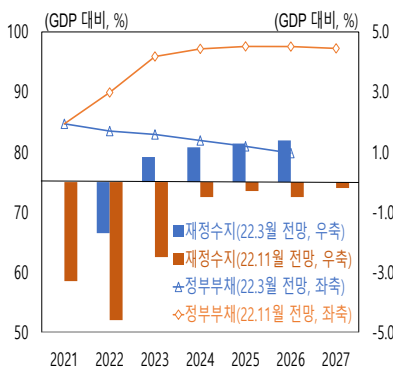
*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차입감소분이 연간 최대 400억파운드(2027년 명목 GDP 전망치 대비 1.4%)에 이를 것으로 전망(OBR)

○ 다만 경기침체*, 에너지 지원,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증대 등으로 인해 직전 전망(22.3월) 대비 재정적자 및 부채비율 전망치는 다소 악화

*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(%) : 22.3월 전망 1.8 → 11월 전망 -1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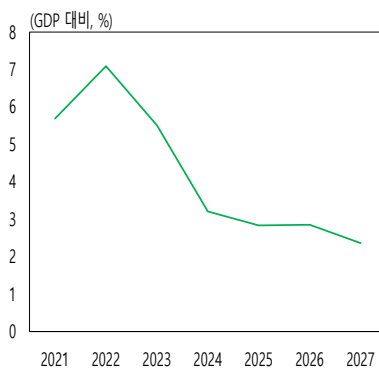
— 이에 따라 향후 국채발행량의 준거가 되는 중앙정부 순자금조달(CGNCR) 전망치도 직전 전망 대비 증가

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비율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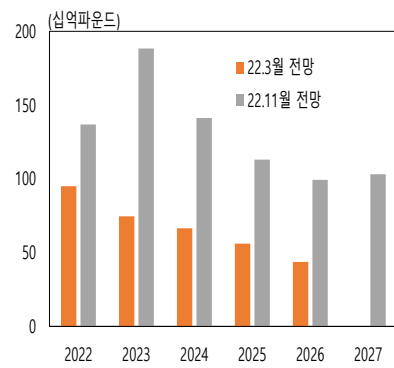
자료: OBR

공공부문 순차입규모 전망



자료: OBR

중앙정부 순자금조달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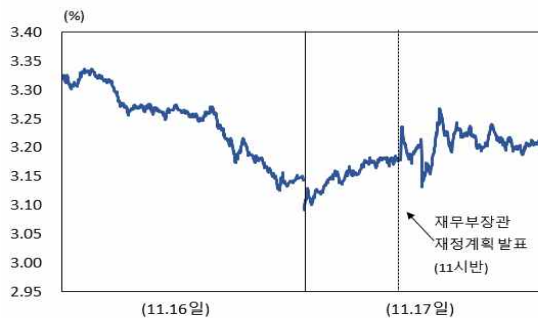
자료: OBR

3

금융시장 반응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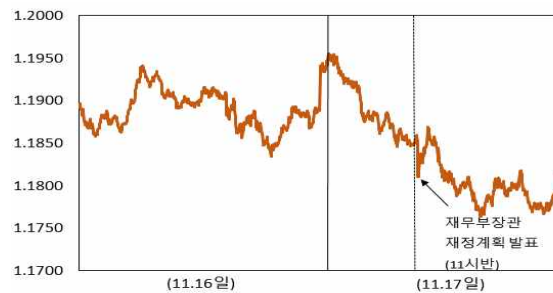
- 영국 국채금리(10년물 기준)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대를 선반영하여 전일 크게 하락한 후 금일 오전중 상승하다 정부 발표 이후 등락하여 상승 마감(런던 17:00시 기준 3.20%, 전일대비 +5bp)
- 파운드화 환율(U\$/£)은 금일 오전중 하락세를 보이다 정부 발표 이후에는 경제 성장세 우려 심화 등으로 추가 하락(17:00시 기준 1.1810, 전일대비 -0.66%)

영국 국채(10년물) 금리



자료 : 블룸버그

파운드화 환율(U\$/£)



자료 : 블룸버그

-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번 정부 예산안이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하나, 일부에서는 재정건전화의 연도별 계획이 단기 시계에서 다소 완화적으로 평가
 - 에너지기업 초과이윤세 인상 및 고소득자 과세구간 확대 등 정부수입 증대(250억파운드)와 에너지가격 지원 축소 등 정부지출 감소(300억파운드)를 통한 재정 건전화 규모(550억파운드)는 시장 전망치와 대체로 일치
 - 다만 정부지출 감소안의 상당부분이 내후년보다 의회 총선(24년 예상) 이후인 2025~27년에 집중된 것이 향후 통화긴축기조에 다소 매파적일 가능성(Citi)
 - 에너지가격 지원대책*이 포함된 단기 재정지원안은 가계의 실질소득 하락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 이는 매파적인 통화정책 요인으로 작용(Lloyds)
- 향후 영국 국채금리는 통화긴축기조 지속 등으로 중기적인 상승세가 예상되고, 파운드화 환율은 성장세 우려 심화 등으로 하방 압력이 다소 우세할 전망

* 시장은 에너지가격 상한이 23.4월부터 일부 저소득 가계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금일 재정계획은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가격상한을 증액(연간 2,500파운드 → 3,000파운드)

- 국채금리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화긴축기조가 고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상승세가 우세할 가능성
- 파운드화는 재정계획 발표에서 전망된 경기침체 장기화, 단기적인 국가부채비율 악화 등을 감안시 하락할 가능성(Morgan Stanley)